

# 동부전선 거점 법당 들어서다

## 군종교구 5월 30일 호국육칠사 낙성

군종교구는 5월 30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6사단 문혜리지역에서 호국육칠사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건축부지 140평, 법당 60평(180명 수용), 대웅방(선열당) 30평 등으로 신축된 호국육칠사는 총 1억 5000여 만원이 소요됐으며 남해 보리암 주지 능원 스님이 건립봉사금 1억 500만 원을 후원했다.

호국육칠사가 건립된 문혜리 지역은 군단 및 사단 병력이 1만명 이상 집중되는 지역으로, 군 요충지 법당으로서 10여 개의 부대 장병들이 법회에 동참하는 거점법당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남해 보리암 주지 능원 스님, 육본 호국사 주지 보은 법사, 5군단 금강사 월명 법사, 6사단 청원사 현담 법사 등 10여 명의 인근지역 군승과 6사단장 이재형 소장

과 5군단 참모장 김한태 장군, 제53대 7연대장 고태남 대령 등 불자장병 120여명이 동참했다.

이재형 육군 6사단장은 “호국육칠사는 군장병을 비롯해 이곳을 찾는 모든 불자들에게 마음의 위안과 안식처를 제공하고 바른길을 갈 수 있는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불사에 동참해준 이들에게 감사사를 표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우러리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자양분이 되고 비타민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오늘 호국육칠사 낙성식에 참석한 불자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며 “노후 법당 등이 산재한 상황에서 다른 군법당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사진 왼쪽 두 번째)과 이재형 육군 6사단장(사진 왼쪽 세 번째) 등 불자들이 낙성식 이후 합참하며 불법홍포를 다짐하고 있다.

# 201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다시 연다

## 조계종 중앙신도회 6월 19~20일 광화문광장서 개막식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 날(이사장 이기홍)은 지난 4월 잠정적으로 연기했던 '201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행사'를 6월 19~20일 양일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다.

날마다 좋은날은 “지난 4월 16일, 갑작스러운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적 슬픔에 잠긴 가운데 본 법인은 유가족과 국민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되길 바라며 행사를 이를 남겨둔 시점에서 잠정 연기했다”며 “오는 6월 19~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장소를 변경해 연기했던 개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의 슬픔을 극복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며 남은 이들의 평안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재구성해 진행된다. 20일 오후 7시 본행사 알림식에 앞서 오

후 4시 국민힐링 즉문즉설, 6시 희망의 메시지 보내기가 진행되며 이밖에도 △전통 등 회막속대 세우기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연주회 △북청사자놀이 공연 △축하공연(난타·인디밴드 등) △야간야외영화 상영 등을 비롯한 전통문화 체험 및 전시 부스가 19일부터 20일까지 상설 운영된다.

또한 21일부터 7월 5일 15일간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108개소에서 나눔문화 캠페인을 펼치게 된다.

이기홍 이사장은 “2년차를 맞이한 행복 바라미가 세월호 참사의 시대적 아픔을 안음과 동시에 불교계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조계종 도난 성보 백서 'UP-GRADE' 한다

## 조계종 문화부 2일 기자회견서... 호법부·사찰 연계 추진

조계종이 도난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도난백서를 새로이 제작하고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일)는 6월 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도난백서 재발간을 비롯해 일선 사찰에 도난신고 공문 발송 등 수습조치를 설명했다.

혜일 스님은 “문화부와 불교문화재연구소, 불교중앙박물관 직원들이 그동안 모아 온 도난목록 대조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도난백서’로 발간해 종단 인력에 홍보할 방침”이라며 “호법부와도 연계해 도난당한 성보 문화재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이미 1984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불교회화, 불교조각, 탑파, 석등, 불교공예, 전적, 경판 등 도난된 불교문화재를 대상으로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문화부는 지금까지 총 300여 점의 도난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난시기, 유통경로 등에 대한 기록 부족으로 회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혜일 스님은 “(백서) 발간·홍보는 도난된 불교문화재가 거래되는 수요를 완전히

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도난품 거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성보 도난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문화부는 5월 29일 <도난백서> 등을 토대로 전시전 물품 모니터링을 통해 경매 직전 도난문화재를 발견해 회수한데 6월 2일에도 같은 경매장에서 도난문화재 1점과 사설박물관에서 2점을 추가로 발견, 회수조치했다.

### 백서 발간 이후 도난 건수 '급감'

### M옥션·H박물관서 3점 추가 회수 “도난 정보 거래 원천봉쇄 나설 것”

추가로 발견된 도난문화재는 M옥션에서 회수한 남원 선국사 ‘삼불회도’, H박물관에서 회수한 경주 백률사 ‘노사나불회도’와 전주 서고사 ‘나한상 복장유물’ 등이다.

조계종 문화부의 도난백서 및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은 이러한 모니터링에 의한 회수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계종 문화부는 경찰·문화재청과 M옥



M옥션에서 추가로 회수된 '남원 선국사 삼불회도' (왼쪽)와 H박물관에서 회수된 '전주 서고사 나한상 복장유물'. 문화부는 이같은 도난문화재의 회수를 위해 도난백서를 재발간 할 계획이다.

션 경매물품을 조사해 총 18점 중 5점을 회수했지만 나머지 작품 중 도난문화재로 추정되는 물품들은 그대로 경매에 붙여졌다. 특히 완주 송광사 칠성도로 추정되는 작품은 사찰 측 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혜일 스님은 “이같은 사건의 방지를 위해서는 사찰의 적극적인 신고와 총무원-경찰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성보보존위는 최근 발간한 <성보> 9호에서 조계종이 사찰문화재 실태 파악, 도난백서 발간 등에 나선 2002년을 기점으로 매년 10건에서 4건 이하로 성보문화

재 도난사건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번회 조계종 문화부 행정관의 '해외유출 불교문화재 현황과 환수방안' 보고서에서 <도난백서> 발간 이후 공황과 항만, 경찰서 등에 배포돼 도난문화재가 불법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했다”며 “매년 평균 10건 이상 도난사건이 2002년부터 4건 이하, 2007년부터 2건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해외 유출된 문화재 환수 등 과제가 남은 만큼 유출경로에 따라 기증과 구입, 반환요구 등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 용주사 정호 스님 조계종 법무팀에 공개 토론 제의

## “사미·비구계 허위 승적, 특별법 적용 예외” 주장

조계종 제 2교구 용주사가 차기 주지 인선을 놓고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호 스님이 차기 주지 유력 후보인 A스님의 승적에 대한 승적관련특별조치법 유권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계종 법무팀에 지상 공개 토론을 제의했기 때문이다.

정호 스님은 6월 5일 본지와와의 전화통화에서 “승적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총무원측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법리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어서 종단의 공식입장으로 보기 어렵다. 공문으로 예고한 대로 이 문제를 공론에 부치고자 지상 공개 토론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용주사는 20년 동안 전장 문도회의 규칙에 따라 평온하게 주지 후보를 선출해왔으나 해당 스님이 이를 무시하고 경선을 주장했다”면서 “문도의 자존과 긍지를 훼손해 해당 스님의 자격을 중헌중법으로 검증한 결과 승려의 지위취득에 관해 결정적 하자가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정호 스님은 A 스님의 승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 사실들을 적시했다.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승적부에 올려져 있는 A 스님의 승적에는 1977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9년 봉선사에서 월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고 기술했으나, 해당 본사에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범어사에서

### “문도 A 스님 승적 허위 논란 수계 년도에는 승려 생활 안해 승적 관리 특별법엔 해당 불가

는 1977년 당시 전계사로 고암 스님을 모셨던 것으로 회신됐으며, 봉선사에서도 정확한 수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정호 스님은 총무원에 허위 승적이 스님이 '1981년 단일계단 이전 승려'가 해당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승적 관리 특별조치법'의 적용 범위가 특별법 공포 당시 단일계단 이전에

계를 수지한 것으로 이는 모든 스님에게 해당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정호 스님의 주장이다.

정호 스님은 “조계종 법무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허위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 만들어진 승적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는 법계 행위이자 비도덕적인 비위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정호 스님은 총무원의 공개 반론을 공식 요청했다. 스님은 “특별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논리적 모순과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돼 종단의 공식의견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허위 승적을 가진 스님을 단일계단 이전 승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14일까지 공개적인 의견 개진이 없을 경우 종헌 중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주지 선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4월 제정 공포된 '승적 관리 특별조치법'은 1981년 단일계단 이전 수계 승려의 경우 2013년 4월 1일까지 총무원 총무원의 승적관리중무행정 프로그램에 입력된 사항대로 확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조계종 3급 승가고시

## 단답형 문제 공개돼 고시위, 1일 문제집 공개

처음으로 단답형 문제가 출제되는 조계종 3급 승가고시의 예상문제가 공개됐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6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3급 승가고시 단답형 예상문제집”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그간 1교시 필수과목이던 '조계종사' 논술형 문제 대신 단답형 주관식 문제가 출제됨에 따라, 스님들의 부담감을 줄이고 학습한 내용을 교학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예상문제를 미리 공개했다. 하지만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답은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예상문제집에는 각급 교육기관 교수 및 전문가 등에 의해 출제된 263문제가 담겨 있으며 이중 50문제가 그대로 출제된다. 3급 승가고시 논술주제와 단답형 예상문제집은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3급 승가고시는 오는 10월 9일 중앙승가대학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 행 국운융창 국태민안기원

#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창종 14주년법회 제 5대 종정추대 및 총무원장취임식

한국불교 중흥호 경허선사로 이어온 선맥을 전수받은 만공선사, 해천선사, 도일선사의 법을 이은 고봉당 지산대종사께서 본 종 제 5대 종정으로 추대되어 취임식을 봉행하기로 하였습니다.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教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根本教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중지로 하고 있습니다.

일 시 / 불기 2558년 6월 7일(토요일 오후 1시)  
장 소 / 경남 양산시 석계리 900-1 경남교구 총무원 금조선원

**종 정 예 하 : 고봉당 지산 대종사**  
**전 계 대 화 상 : 석능인 대종사**  
**원 로 의 장 : 범아 대종사**

총무원장 : 혜송종  
교육원장 : 무변  
문화원장 : 영봉

사서실장 : 원담  
교육부장 : 해광

종회의장 : 법장  
포교원장 : 효천  
무술연수원장 : 도천

총무부장 : 혜천  
호법부장 : 광명

사정원장 : 법화  
호계원장 : 인묵

비구니부장 : 흥신  
사회부장 : 보운

중앙선원장 : 덕암  
염불원장 : 상호

재무부장 : 수연  
규정부장 : 도신

경기교구총무원장 : 인덕

경남교구총무원장 : 금조

충북교구총무원장 : 정진

대구교구총무원장 : 법천

**종도모집중**

현 종도 422명, 등록사찰수 382개 사찰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5길 197번지 각황사 053) 325-0400 팩스 053) 325-4848

■ 대본산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040번지 운진사